

26. 가정 표현하기

26강에서는...

- 1) 가정 접속사 'ถ้า (ถ้า-)'를 알아봅시다.
- 2) 양보의 접속사 'ถึงแม้ว่า (ถึง 매-와-)'를 알아봅시다.
- 3) 이유의 접속사 'เพราะ ~ จึง (프러 ~ 쯔)'을 알아봅시다.
- 4) 관계 대명사 'ที่ (티-)'를 알아봅시다.

<태국의 문화> 태국의 무예타이

1. 가정의 접속사 'ถ้า (ถ้า-)'

ถ้า (ถ้า-): 만일, 만약 ~ 라면

ก็ (ก็-): ~면, ~라면

- ถ้า (ถ้า-) + 주어 1+ 동사1 주어2 + 동사2 ...

- ถ้า (ถ้า-) + 주어 1+ 동사1 주어2 + ก็ (ก็-) + 동사2 ...

สุขภาพ	쑤카파-ㅂ	건강
เริ่ม	림	시작하다
ฝึก	푼(f)	연습하다
มวยไทย	무-아이 타이	무예타이

[EBS 초급 태국어]

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	어-ᄃᆞᆫ 캄랑 까-이	운동하다
-------------	--------------	------

ช่วงนี้มีสุขภาพดีขึ้น

(추-앙 니- 품 미- 쑈카파-ㅂ 다- 큰)

: 요즘 저는 건강이 좋아졌어요.

ทำอย่างไรมีความสุขเพิ่มขึ้นคะ

(탐 야-오 라이 미-쑈카파-ㅂ 디-큰 카)

: 어떻게 해서 건강이 좋아졌나요?

ผมเริ่มฝึกมวยไทยแล้วครับ

(폼 림 프(f) 무-아이 타이 래-우 크랍)

: 저는 무예타이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ถ้าคุณ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ทุกวัน สุขภาพของคุณก็จะดีขึ้น

(타- 쿤 어-ㄱ 감랑 까-이 툃 완, 쑤카파-ㅁ 커-ㅇ 쿤 꺼- 짜 디- 큰)

: 만약 당신이 매일 운동한다면, 당신의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ชม	쵸	보다, 구경하다, 감상하다
สนามมวย	싸나-ㅁ 무-아이	무예타이 경기장, 권투 경기장
แถว	태-우	근처, 부근 줄, 열
พอดี	퍼-디-	마침, 꼭 맞다, 알맞다

ถ้าพุ่มนี้ฝนไม่ตก ไปชมมวยไทยกันไหม

[EBS 초급 태국어]

(타- 프룽^ㄴ- 폰(f) 마이 독, 빠이 춤 무-아이 타이 칸 마이)

: 만약 내일 비가 안 온다면, 무예타이 보러 갈래요?

ดีครับ แถวบ้านมีสนามมวยพอดี

(디- 크랍, 태^ㅍ-우 바-^ㄴ 미- 싸나-^ㅁ 무-아이 퍼-디-)

: 좋아요, 마침 집 근처에 무예타이 경기장이 있어요.

ถ้าเพื่อน ๆ มีเวลาว่าง ก็ชวนไปด้วยกันเถอะนะ

(타- 프^ㅍ안 프-^ㅍ안 미- 웨-^ㄴ라- 와-^ㅇ, 껀 추-^ㅍ안 빠이 두-^ㅍ아이 칸 트^ㅍ 나)

: 만약 친구들이 시간이 있다면, 친구들도 같이 가자고 권합시다~!

2. 양보의 접속사 'ถึงแม้ว่า (ตม 매-와-)'

ถึง(แม้ว่า) (ตม (매-와-)): 비록 ~ 일지라도

- ถึงแม้ว่า (ตม 매-와-) 주어 1+ 동사1 주어2 + 동사2 ...

- ถึงแม้ว่า (ตม 매-와-) + 주어 1+ 동사1 주어2 + 껀 (꺼-) +동사2 ...

จริง	ჟჳ	진짜이다, 진실이다
เดียว	디-아우	유일하다, 하나의
ถ้าอย่างนั้น	타- 야- ^ㅇ 난	그러면, 그렇다면
เลิก	르 ^ㅍ - ^ㅏ	끝나다, 마치다
รีบ	리- ^ㅍ	서두르다
ตามไป	따- ^ㅁ	따라가거나 따라오다, 뒤쫓다 ~대로, ~처럼

ขอโทษจริง ๆ ค่ะ วันนี้คงไปไม่ทัน

(커-토-ㅅ 썩썩 카, 완니- 쿡 빠이 마이 탄)

: 정말 미안해요. 오늘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요.

ไม่เป็นไรครับ ถึงแม้ว่าคุณจะไม่มา ผมก็จะไปคนเดียว

(마이 뽀 라이 크랍, 텡 (매-와-) 쿡 짜 마이 마-, 폼 꺼- 짜 빠이 쿡 디-아우)

: 괜찮아요. 비록 당신이 안 와도 저는 혼자 갈 거예요.

ถ้าอย่างนั้น หลังเลิกงาน ดิฉันจะรีบตามไปนะคะ

(타- 야-ㅇ 난, 랑 르ㅣ-ㄱ 응아-ㄴ, 디찬 짜 리-ㅅ 따-ㅇ 빠이 나 카)

: 그렇다면 일을 마치고 제가 서둘러 뒤따라 갈게요.

3. 이유의 접속사 'เพราะ ~ จึง (프리 ~ 쯔)

เพราะ (프리): ~때문에

จึง (쯔): 그러므로, 그래서

- เพราะ (프리) + 주어1+ 동사1 주어2 + จึง (쯔) + 동사2 ...

- 주어2+ 동사2..... เพราะ (프리) + 주어1 + 동사1 ...

ข้างใน	카-ㅇ 나이	안, 안쪽
บัตรเข้าชม	밧 카오 촘	입장권
หมด	못	다하다, 끝나다, 없어지다

ทำไมคุณไม่เข้าชมข้างในคะ

(탐마이 쿡 마이 카오 촘 카-ㅇ 나이 카)

[EBS 초급 태국어]

: 왜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나요?

เพราะบัตรเข้าชมหมด ผมจึงเข้าไม่ได้ครับ

(프러 바트 카오 춤 못, 폼 쯡 카오 마이 다이 크랍)

: 입장권이 매진되어서,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ดิฉันก็เข้าไม่ได้ เพราะบัตรเข้าชมหมดเหมือนกันค่ะ

(디찬 께 카오 마이 다이, 프러 바트 카오 춤 못 무-안 칸)

: 저도 입장권이 매진되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4. 관계 대명사 ที่ (티-)

- ที่(티-): ~인, ~한

คนที่ใส่เสื้อสีดำนั่นคือใครคะ

(곤 티- 싸이 쓰-아 씨- 담 난 크- 크라이 카)

: 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คนใส่เสื้อสีดำ (곤 싸이 쓰-아 씨- 담): 사람이 검은색 옷을 입었다.

→ คนนั้นคือใครคะ (곤 난 크- 크라이 카):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คนที่ฝึกมวยไทยนั้นคือเพื่อนของผม

(곤 티- 께(f) 무-아이 타이 난 크- 프-안 커-ㅇ 폼)

: 저 무예타이를 연습하는 사람은 내 친구이다.

→ คนฝึกมวยไทย (곤 께(f) 무-아이 타이): 사람이 무예타이를 연습한다.

[EBS 초급 태국어]

→ คนนั้นคือเพื่อนของผม (콘 난 크- 프-안 커-ㅇ 품): 저 사람은 내 친구이다.

5. 대화: 가정 표현하기

ปอนด์: ถ้าพรุ่งนี้ฝนไม่ตก ไปชมมวยไทยกันไหม

(빠-ㄴ) (타- 프룽니- 폰(f) 마이 똑, 빠이 촌 무-아이 타이 칸 마이)
: 만약 내일 비가 안 온다면, 무예타이 보러 갈래요?

น้ำ: ขอโทษจริง ๆ ค่ะ

(나-ㅇ) (커-토-ㅅ 핑핑 카)
: 정말 미안해요.

พรุ่งนี้คงไปไม่ทัน เพราะติดงาน

(프룽니- 콩 빠이 마이 탄, 프러 락 응아-ㄴ)
: 내일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있어서요.

ปอนด์:ไม่เป็นไรครับ ถึง(แม้ว่า)คุณจะไม่มา ผมก็จะไปคนเดียว

(빠-ㄴ) (마이 뽀 라이 크랍, 텡 (매- 와-) 콘 짜 마이 마-, 품 꺼- 짜 빠이 콘 디-아우)
: 괜찮아요. 비록 당신이 안 와도 저는 혼자 갈 거예요.

น้ำ: ถ้าอย่างนั้น หลังเลิกงาน ดิฉันจะรีบตามไปนะคะ

(나-ㅇ) (타- 야-ㅇ 난, 랑 르ㅣ-ㅈ 응아-ㄴ, 디찬 짜 리-ㅂ 따-ㅇ 빠이 나 카)
: 그렇다면 일을 마치고 제가 서둘러 뒤따라 갈게요.

[EBS 초급 태국어]

〈복습하기〉

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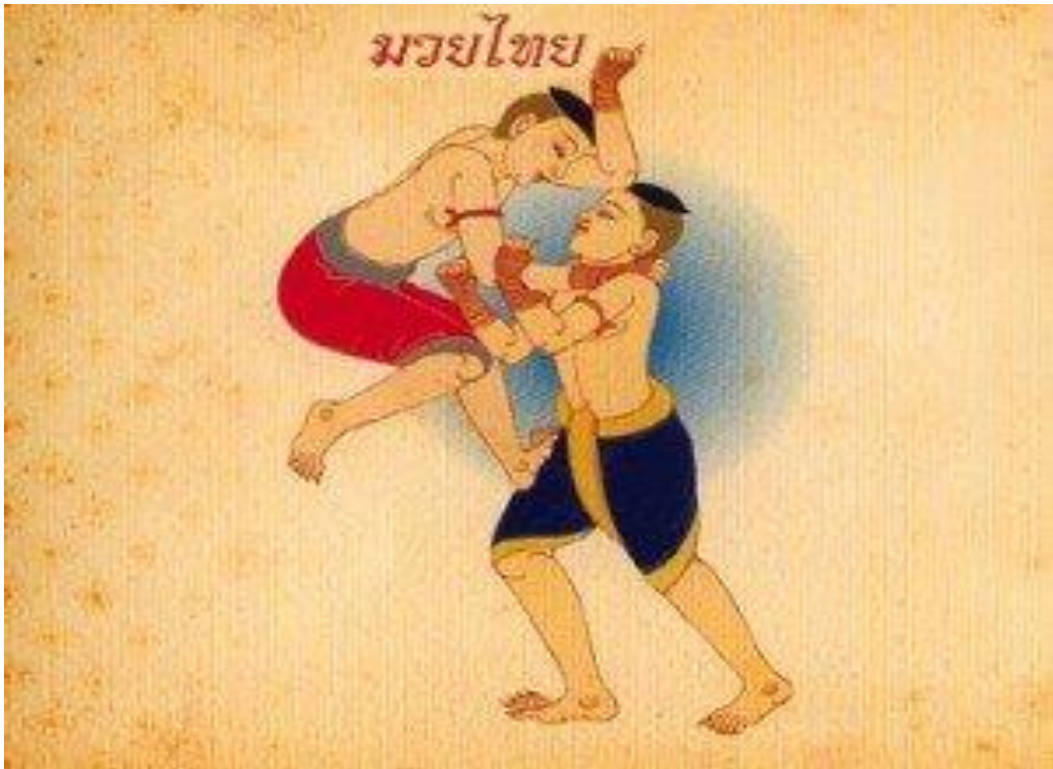
- 만약 당신이 매일 운동한다면, 당신의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 만약 친구들이 시간이 있다면, 친구들도 같이 가자고 권합시다~!

- 정말 미안해요. 오늘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요.
- 비록 당신이 안 와도 저는 혼자 갈 거예요.

- 입장권이 매진되어서,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 저도 입장권이 매진되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 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저 무예타이를 연습하는 사람은 내 친구이다.

< 태국의 무예타이 >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écnica_muay_boran.jpeg)

무예타이는 태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겨루기 무술로 여겨진다. 무예타이의 특징은 신체 9개 부위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2개의 손, 2개의 발, 2개의 무릎, 2개의 팔꿈치와 1개의 머리를 사용한다. 무예타이는 자신을 지키는 무술이며, 전술학의 기초로서 과거 태국의 군인 남성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학문이었다. 무예타이는 지략과 기술, 재치를 사용하는 학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고위 관료와 무인계급, 그리고 일반인들까지도 자신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예타이를 연습했다고 전하고 있다. 무예타이는 평시에는 체육 훈련과 겨루기 기술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중요한 날에는 무예타이 경기가 사회적 행사가 되기도 했다.

무예타이는 과거 “쑤완나품” 이라 불린 지역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 지역은 크고 작은 나라들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오늘날 버마, 라오스, 크메르,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알려진 곳이다. 태국 아유타야 초기의 왕정법에서 무예타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약 957년 이후 즈음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과 보완을 거듭해온 무예타이는 1887년 쥘라롱껀 대왕(라마 5세)의 교육 과정 재정립 때 교과목으로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었다. 특히 체육교사 양성학교와 왕립 군사학교에서는 무예타이를 일주일에 2시간 훈련하도록 하였다. 1929년 롬피니 공원 부근에 1945년 라차담닌에 상설 경기장이 생겨 경기를 열게 되었다. 태국 국내외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